

별책부록

성경적 종말론

에 인용된 성경 구절 모음

별책 부록

성경적 종말론에 인용된 성경 구절 모음

© 1999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성경적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에 인용된 성경 구절 모음

엮은이	편집부
초판발행	2010.1.20
발행처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1999. 6.18. 제17-29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7층
전화	0505-856-1997
홈페이지	www.ilovekjb.com
표지디자인 · 편집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이 책은 <성경적 종말론>의 별책 부록입니다.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The Christ-Honoring Commentary Series
The Book of Revelation Book One

별책부록

성경적
종말론

에 인용된 성경 구절 모음

편집부 엮음

KJ 강제임스
KingJames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사전정지작업

영적인 해석

(계1:3)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계10: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22:10)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22:18-19)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기록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계1:19)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계1:7)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рода. 아멘.

(계3:11)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冠)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16:15)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

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계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과거적 해석

(계1:19)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미래적 해석

(계1:19)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제1장 기초 농기

1. 다섯 가지 복음

(요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마19:16-17) 보라, 어떤 사람이 나아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갈5:22-23)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딤후2: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하늘 왕국의 복음

(마24:14)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오리라.

(눅1:30-33)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마3:1-3)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4: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10:7)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마26:56)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19:15)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없애 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눅19:14)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호3:4)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행20:24)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고전15:1-4)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요1:12)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롬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고전9:12)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엡6:15)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요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눅17:20-21)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영광스러운 복음

(고후4:4)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딤후1:11)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런 복음에 따

른 것이니라.

(히2:10)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영존하는 복음

(계14:6-7)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복음

(갈1:6-12)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고후11:4)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마14:30-31)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눅22:32)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2. 첫째 부활

(요19:25-27)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갓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하다.

(요11:2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16: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가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단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요5:28-29)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행24:15)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이다.

(계20:1-5)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닷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리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바닷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요11:23)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요11:23-25)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

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눅20:35-36)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눅14:14)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네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살전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히11:35)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첫 열매들

(요20:16-18)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 말은, 선생님이며, 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 막달라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고 말하

니라.

(마27:52-53)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히2:14)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엡4:8-10)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23:4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12:40)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고후12:1-4)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

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골2:15)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주수(수확)

(살전4:13-18)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요11:26)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고전15:51-58)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

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삭줍기

(계14:1-3)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를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십사만 사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계11:11-12)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 시므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3. 대환란에 대한 정의

(마24: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렘30:7) 아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단9:24-27)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고전10:32)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단9:22-24)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아왔느니라, 하니라.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

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스1:1-4)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일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도 하고 또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분의 백성이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니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대하36:22-23)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일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도 하고 또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곧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그

분의 백성이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스6:1-12) 이에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 두루마리를 둔 집 곧 바빌론에서 보물들을 쌓아 둔 곳을 찾아보게 하였더니 메대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궁궐에서, 악메다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찾으니라. 그 안에 이같이 한 기록이 적혔더라. 고레스 왕의 제일년에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칙령을 내려 이르기를, 그 집 곧 그들이 희생물을 드리던 곳을 건축하되 그것의 기초를 견고히 놓고 그것의 높이는 육십 큐빗으로 하며 너비도 육십 큐빗으로 하고 또 큰 돌 세 줄과 함께 새 나무 한 줄을 놓으라. 또 그 경비는 왕의 집에서 낼지니라. 또 하나님의 집에 속한 금 기구와 은 기구들 곧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긴 기구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에 두되 각 기구를 그것의 처소에 돌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제 강 건너의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너희 동료들 곧 강 건너에 있는 아바삭 사람들은 거기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이 집에 관한 일을 그대로 두고 유대인들의 총독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그것의 처소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이 집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너희가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 건너에서 들어오는 조공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빨리 주어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즉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헌물에 쓸 어린 수소와 숫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즙과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지정하는 대로 날마다 어김없이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물을 드리게 하고 또 왕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칙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이 말을 변개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서 일으켜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것으로 인해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손을 대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바꾸거나 멸하려는 모든 왕들과 백성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칙령을 내렸노니 신속히 그 일을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스7:11-28)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분의 법규를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왕들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내노니 완전한 평강이 이때에 있을지어다.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영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마음먹은 자들은 다 나와 함께 갈지어다. 네가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왕과 그의 일곱 조언자들로부터 보내어졌으니 왕과 그의 조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린 은과 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온 바빌론 지방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들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 헌물을 가져다가 이 돈으로 수소와 숫양과 어린양과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제단 위에 그것들을 드리고 은과 금 가운데 남은 것은 너와 네 형제들이 선히 여기는 일이 무엇이든지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쓸지니라. 또 너는 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기구들 곧 그것들을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드릴 기회가 있거든 왕의 보고 집에서 그것을 취해 드릴지니라.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은 강 건너에 있는 모든 재무관에게 칙령을 내리노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즙은 백 바스까지, 기름은 백 바스까지 하고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하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해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들의 영토에 있게 하리요? 또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뎨 사람들과 혹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니라. 에스라여,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법들을 아는 자들을 행정관과 재판관으로 세워 강 건너에 있는 온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너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신속히 그에게 재판을 집행하여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둘지니라.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아름답게 하려고 왕의 마음에 이 같은 것을 두시고 또 왕과 그의 조언자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통치자 앞에서 내게 공물을 베풀셨도다. 주 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 되는 자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느2:5)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

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단9:25)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단9:26)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요1:11)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슥9:9)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칠지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마21:1-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벳바게에, 올리브 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곧 너희가 매여 있는 나귀와 그것 곁의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리라, 하시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렸으니,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

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 위에 앉으시느니라, 하라, 하였느니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그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를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소동하여 이르되, 이분이 누구시냐? 하거늘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 하니라.

(딤후2:11)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고후5: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민14: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사십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겔4:6)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네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사십 일 동안 유다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각 날을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창7:11) 노아의 생애에서 육백 번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십칠일 바로 그 날에 큰 깊은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창7:24) 물들이 백오십 일 동안 땅 위에 넘쳐더라.

(창8:3-4)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가고 백오십 일이 지난 뒤에는 물들이 줄어들어 일곱째 달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하니라.

(눅19:42) 이르시되, 적어도 이 날 즉 네 날에만이라도 너 곧 네가 네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네 눈에 숨겨졌도다.

(계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 받게 하려 함이라.

(계13:5)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계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다.

(단9: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단9:24)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

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요19:30)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숨을 거두시니라.

(벤전2:24)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고후5:19-21)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1:30)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계1:6)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통의 시작

(마24:7-8)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다니엘의 70째 주

(단9: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성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대환란

(마24:15-21)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이다. 그 날들에는 아이 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рода!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 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단9: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성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단11:31)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단12:1)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는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

견된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단12:11)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
터 천이백구십 일이 있으리라.

(계11:7-8)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에 바닥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
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
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이니라.

(계11:2)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
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마흔두 달 동
안 밟로 짓밟으리라.

(마24:15)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
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기록
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이다.)

(마24:1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로 도망할지이다.

(마24:21)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
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
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4. 창세기와 계시록의 비교

(창1:26)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
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
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계21:5)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

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
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창1:16)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체를 만드
사 큰 광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체
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계21:23)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
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
시의 광체이시기 때문이다.

(창1:5)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
이 첫째 날이더라.

(계21:25)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
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창1:10)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
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21:1)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
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창2:18-25)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
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
라.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
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
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살아
있는 모든 창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
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
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
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
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때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별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계19:7)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창2:9)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3:22)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계22:2)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3: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계20:10)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

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창3:23-24)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를 땅에서 취하였으므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계21:1-3)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창22:7)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계22:3)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창3:1)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계21:27)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창10:8-10)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였더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네이며

(창3:14-19)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네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계21:4)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창4:1-10)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열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계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창3:14-19)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

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네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계22:3)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창3:1-4)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계20:10)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

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창3: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계21:4)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더라.

(창2:10)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계22:1)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라.

(창3:24)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 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계 4:6)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창3:24)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 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계21:25)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창3:6)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창3:23)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를 땅에서 취하였으므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계21:1)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창2:2)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계22:2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창50:26) 이렇게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제2장 교회 시대

5. 교회시대 개관

(골1:2) 골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4: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행20:6-7) 우리는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던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 동안 거기 머무니라.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계1:19)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계2:1)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일곱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6. 예언적으로 본 일곱 교회시대

에베소 교회 시대

(계2:1-7)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일곱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네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 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

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막16:17-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고후12:12)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마20:25-28)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계2:6)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계2: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계1:6)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23: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

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벧전2:9)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롬8:28-30)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2:6)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계2: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살전1:3)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계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네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서머나 교회 시대

(계2:8-11)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 곧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 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네가 부유하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아노라. 네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마10:28) 몸은 죽어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버가모 교회 시대

(계2:12-17)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또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약4:4)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계2:13)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또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

(계2:18-29)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네 인내와 네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느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히10:12)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 편에 앉으사

(계2: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계2: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계2:24)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사데 교회 시대

(계3:1-6) 사데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 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네게 이를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사데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네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계3:7-13)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관(冠)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요일3:16)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22:22)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계3:20)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7. 교회 시대 총정리

인용 구절 없음

8. 일곱 비유와 일곱 교회

(마13:3)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계2:1-7)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이 곧 일곱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네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 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마13:18-23)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

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 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백 배, 얼마는 육십 배, 얼마는 삼십 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마13:24-30)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13:31-32)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겔31:3-14)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으며 그의 꼭대기는 굽고 큰 가지들 사이에 있었도다. 물들이 그를 크게 하였고 깊음이 그를 높이 세우면서 자기의 강들이 그의 초목들 주변을 흐르게 하였으며 자기의 작은 강들을 내보내어 들의 모든 나무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뻗어나갈 때에 그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고 그의 큰 가지들이 번성하며 물들이 많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게 되었더니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큰 가지들에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서 자기들의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그의 뿌리가 큰물들 곁에 있었으므로 그가 이와 같이 크게 되고 그의 가지들이 길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전나무들이 그의 큰 가지들과 같지 못하며 밤나무들이 그의 작은 가지들과 같지 못하여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아름다운에서 그와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의 작은 가지를 많게 하여 그를 아름답게 하였으므로 이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 그를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높은 키로 말미암아 네 자신을 높였느니라. 그가 자기 꼭대기를 굽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었으며 그의 마음이 자기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높아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이교도들 중에서 힘센 자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가 반드시 그를 처리하리

라. 내가 그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를 내쫓았느니라. 타국인들 곧 민족들 중에서 무서운 자들이 그를 자르고 내버려 두었으므로 그의 작은 가지들은 산들 위에와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그의 큰 가지들은 땅의 모든 강들 곁에서 꺾이며 땅의 모든 백성은 그의 그늘에서 떠나 그를 내버렸느니라.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폐허 위에 머물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위에 있으리니 이것은 그 물들 곁의 모든 나무 중 어떤 것도 자기의 높은 키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 꼭대기를 굽고 큰 가지들 가운데로 뻗지 못하게 하며 또 그들의 모든 나무 곧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스스로 높이 서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다 죽음에 넘겨져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사람들의 자녀들의 한가운데서 땅의 아랫부분에 이르렀도다.

(단4:10-19)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리 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심히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아 그것의 모습이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의 그늘에 있으며 하늘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 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훔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되 쇠와 못 띠로 매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

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뭍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또 그의 마음을 바꾸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일곱 때가 그의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순찰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보았나니, 오 벨드사살아, 이제 너는 그것의 해석을 밝히고하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능히 해석을 내게 알려 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속에 있느니라. 그때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이 한 시간 동안 크게 놀라며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하므로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것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매 벨드사살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향하고 그것의 해석이 왕의 원수들을 향하기를 원하나이다.

(마13:33)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마13:44)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 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출19:5)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마13:45-46)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13:47-50)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9. 일곱 교회를 통해 본 다른 견해들

(왕상12:26-33)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너무 큰일이로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을 보라, 하니라. 그가 하나는 뱀엘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팔월 곧 그 달 십오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또 그가 뱀엘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뱀엘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팔월 십오일에 자기가 뱀엘에 쌓은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10. 일곱 교회를 통해 살펴 본 오늘날의 오류

인용 구절 없음

11. 교회가 사라짐

(계6:2)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살후2:6-7)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가 지 막으리라.

(마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계13:7)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계4:1)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살전4:13-18)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렘30:7) 아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단9:24-27)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리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계6:16-17)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 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습1:15)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살전1:10)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 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살전5: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계4:4 - 5:14) 또 그 왕좌 둘레에 스물네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좌 한가운데와 왕좌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의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獅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양께서 서 계시더라. 그분께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분께서 나아오사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매 네 짐승과 스물네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에 네 짐승이 이르되,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벧전5:2-4)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 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딤후4:8)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계1:6)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

하노라. 아멘.

(딤후2:12)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계5:9-10)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계1:5)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고후5:10)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고전3:11-15)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진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계4:4) 또 그 왕좌 둘레에 스물네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스물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벧전2:9)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딤후3:5)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대상24:1-19)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구분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아이가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취한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취한 아히멜렉에게 그들을 나누어 주되 그들의 섬기는 직무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우두머리 사람들이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나온 자들보다 많으므로 그들을 이같이 나누었으니 곧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사람이요,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여덟 사람이더라. 이같이 그들을 제비 뽑아 한 종류와 다른 종류로 나누니 성소를 감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집을 감독하는 자들이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서도 있었고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도 있었더라. 레위 사람들 중 하나인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아가

왕과 통치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나라. 엘르아살을 위하여 한 으뜸가는 집안을 취하고 또 이다말을 위하여 한 집안을 취하였으니 이제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아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교소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흠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아브세소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더라. 이와 같은 순서로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밑에서 자기들의 규례대로 섬겼더라.

(제21:10-14)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열두 문이 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욥2:31)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

가 되려니와

(행2:20)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골1:22)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 하셨으니

(고전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고후5:17-2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살전4:13-18)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

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마24:20)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골2:16)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살후2:2)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고전11:32)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창18:25)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매

(벧후2:6-9)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 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멸할 줄 아시되

(창19:14)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제3장 아굽의 고난

12. 환란 때 나타날 하나님의 증인들

(계7:1-3)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14:1-5)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되

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라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십사만 사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계13:15-18)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계13:1-2)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13: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겔9:1-11) 그분께서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며 이르시되, 그 도시의 책무를 맡은 자들로 하여금 각각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아오게 하라, 하시니라. 보라, 여섯 사람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으며 그 중의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 늦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대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내가 듣는 데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그 도시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치되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너희가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철저히 죽이되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그 집 앞에 있던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플들을 죽임 당한 자들로 가득 채우라. 너희는 나아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아가 그 도시에서 죽이니라. 그들이 저들을 죽이는 동안에 나는 남아서 얼굴을 맨 채 엎드려 부르짖으며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어! 주께서 예루살렘 위에 주의 격노를 부으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의 불법이 심

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도시는 사악함으로 가득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 땅을 버리셨으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느니라. 또 나로 말하건대 내 눈이 아직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길을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리라, 하시더라. 보라,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잉크통을 찬 사람이 그 일을 보고 하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대로 내가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신32:5)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분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계14:1)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단11:32-34)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격을 세우리라. 백성 중에서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터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이제 그들이 넘어질 때에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터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단11:35) 또 명철한 자들 가운데 몇이 넘어져서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12:10)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

으리라.

(계11:3-10)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닷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슥4:11-14) 그때에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이니이까? 하고 또 내가 다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두 금관을 통해 자기들 밖으로 금 기름을 비우는 이 두 올리브나무 가지는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의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계11:5-6)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11:7-8)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닷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계11:10)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말4:3-6)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

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마17:1-3)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눅9:30)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출33:21)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치니라.

(왕상17:1)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행7:56)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마10:1-8)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병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제 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리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대오인 렘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롯 유다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예수님께서 이 열둘을 내보

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요1:11)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민16:31-35)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매 그들 밭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 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주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드린 이백오십 명을 소멸시켰더라.

(왕상1:10) 대언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말4:1-3)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를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왕하2:8) 엘리야가 자기의 겹옷을 취하여 돌돌 말아 물들을 치매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지고 이로써 그들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가니라.

(마14:25-26)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왕상17:1)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약5:17)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으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막4:39)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마11:14)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17: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도되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요1:21)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

엇이나?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속3: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속3:3)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속3:6)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속3:8)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 있는 네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랴.

(속3:9)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학1:1) 다리오 왕의 제이년 유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텍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학2:2-4) 이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텍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 중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로서 처음의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

다. 오 요세텍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3. 환란 때의 구원

(전3:15)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고전10:2)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마24:21)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마24: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24:22)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마25:6)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고후11:1-3)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마25:10-12)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25:1-10)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의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시45:9) 왕의 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 있었나이다.

(시45:14)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마25:31-46)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

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

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히6:4-6)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계13:6-17)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온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살후2:11-12)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엡2:8-9)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롬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계12:17)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계14:12)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계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마24:15)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이다.)

14. 야곱의 고난 전3년 반 기간 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시75:1-5) 오 하나님이며,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주의 놀라운 일들이 밝히 보이나이다. 내가 회중을 받아들이는 때에 올바르게 재판하리이다. 땅과 그것의 모든 거주민은 해체되었으나 나는 땅의 기둥들을 붙들고 있나이다. 셀라. 내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게 굴지 말라, 하며 사악한 자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나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뿔뿔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시75:6-8)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붉으며 그것이 혼합물로 가득하다.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 내시되 그것의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짜내어 마시리다.

(사51:17-23)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이다. 깰지이다. 일어설지이다. 네가 사람을 떼게 만드

는 그 잔의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을 다 짜내어 마셨도다. 예루살렘이 낳은 모든 아들들 중에서 예루살렘을 인도할 자가 없고 예루살렘이 기른 모든 아들들 중에서 손으로 예루살렘을 인도할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라? 곧 황폐함과 파멸과 기근과 칼이니 내가 누구를 통해 너를 위로하라? 네 아들들이 힘을 잃고 그물에 걸린 들소처럼 모든 거리의 머리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주의 격노와 네 하나님의 책망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고난 받는 자여, 포도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취한 자여,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곧 자신의 백성의 사정을 변호하는 주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떼게 만드는 잔 곧 네 격노의 잔의 찌꺼기를 네 손에서 거두어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전에 네 혼에게 이끄기를, 엮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간 그들을 위하여 네가 네 몸을 땅바닥처럼 길거리처럼 눕혔느니라.

(합2:15-16)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네 술 부대를 주며 또 그를 취하게 하여 이로써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이다! 네가 영광대신 수치로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포피를 드러낼지이다.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럽게 토한 것이 네 영광 위에 임하리니

(겔23:31-34) 네가 네 언니의 길로 걸었은즉 내가 그녀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깊고 큰 네 언니의 잔을 마시고 비웃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리니 그것은 많이 담는 잔이라. 네가 술 취함과 슬픔으로 또 네 언니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황폐함의 잔으로 가득 채워지

리라. 네가 그 잔을 마시되 들이마시고 그 잔의 조각들을 부수며 네 가슴을 잡아 뜯으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렘25:27)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로 인하여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하라.

(렘48:26) 그가 자기를 크게 하여 주를 대적하였으니 너희는 그로 하여금 취하게 하라. 또한 모양이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며 조롱을 당하리로다.

(렘49:1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심판을 받아 그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확실히 마셨거늘 네가 전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지나가겠느냐? 네가 벌을 받지 아니한 채 지나가지 못하며 반드시 그 잔을 마시리라.

(마26:39) 조금 멀리 나아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시75:9-10)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이것을 밝히 보이며 노래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사악한 자의 모든 뿔을 꺾으리로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뿔들은 높이 들리리로다.

(계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계6:3-4)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마24:6-7a),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니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

(눅21:9-10) 또 너희가 전쟁과 난리에 대하여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마4:10)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렘9:4-5) 너희는 각각 자기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 모든 형제가 철저히 빼앗아 대신 차지하고 모든 이웃이 비방하며 다닐 것이요, 또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을 속이고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자기 혀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왔으며 불법을 행하려고 자신을 지치게 하는도다.

(눅17:26)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눅17:28)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교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엡2:8-9)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24: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계6:5-6)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일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일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마20:2) 그가 하루에 일 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하여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계8: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로 쏟아지니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고 푸른 풀이 다 타더라.

(마24:7b) ...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눅21: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계8:8-9)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니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부서지더라.

(출7:19-21)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네 막대기를 잡고 네 손을 이집트의 물들 곧 그들의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물웅덩이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요, 온 이집트 땅에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그릇에 다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물들이 다 피로 변하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며 온 이집트 땅에 두루 피가 있었으나

(계8:10-11)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 하더라. 그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신29:18)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이 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이 민족들의 신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썩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잠5:4)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썩같이 쓰고 양날 달린 칼같이 날카로우며

(계16:3-4)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으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 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 부으매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계16:9)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롬2:4)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계8: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삼분의 일과 달의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삼분의 일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사34:11-15) 다만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또 올빼미와 까마귀가 그것에 거하리니 그분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돌들을 팽팽히 드리우실 터인즉 그들이 그것의 귀족들을 왕국으로 부르되 거기에 아무도 없고 그녀의 모든 통치자들도 없으리라. 그녀의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라며 그것의 요새에는 켄피풀과 들장미가 자라서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고 올빼미의 쉼이 되리라. 사막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나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들을 부르고 날카롭게 외치는 올빼미도 거기서 안식하며 자기를 위하여 안식처를 찾고 큰 올빼미가 거기에 자기 동지를 틀고 알을 낳아 까서 자기 그늘 아래로 모으며 대머리수리들도 각각 자기 짝과 함께 모이리라.

(막16:17-18)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고전1:19-21) 기록되나,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

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15. 야곱의 고난전 3년반 기간 중의 적그리스도

(살후2:3)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살후2:8)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계13:1-2)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일2:18)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단7:7-8) 이 일 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의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의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단8:8-9) 그러므로 그 숫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단8:23)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죄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단7:3-6)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러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 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단8:24-25)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여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단11:21-24) 또 그의 영토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존귀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로이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리고 참패를 당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하리라. 그와 동맹을 맺은 후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소수의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평화로이 들어가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이르며 자기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고 또 탈취물과 노략물과 재물을 그들에게 흙어 주며 참으로 자기의 계략을 미리 세우고 요새들을 치되 한 때 동안 치리라.

(계6:2)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살후2:9)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계13:14)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살후2:4)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 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단8:25)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계13: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행17:26-27)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에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단8:24-25)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여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계17:7-8)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네게 말하여 주리라. 네

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닷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계13:1)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단7:7) 이 일 후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히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을 가졌더라.

(단8:8-9) 그러므로 그 솟염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그 뿔들 가운데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단11:25-26) 그가 자기의 권세와 용기를 불러 일으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남쪽 왕도 분발하여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터이나 그가 서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락을 미리 세워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가 정해준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할 것이요, 그의 군대가 흘려넘쳐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리라.

(단11:27) 이 두 왕이 여전히 마음에서 해악을 행하려고 한 상에서 거짓말을 할 터이나

그 일이 행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전히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11:22)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리고 참패를 당할 것ियो,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러하리라.

(단9:26)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리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단11:23) 그와 동맹을 맺은 후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리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소수의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9: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यो,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슥 11:15-17)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네게로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끊어진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고 또 그것들의 발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그 양 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같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계13:3)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옴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시83:1-9) 오 하나님이며, 침묵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지 마옵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교활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모의하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모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이들은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 족속과 모압에 속한 자들과 하갈 사람들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요, 두로의 거주민들과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나이다. 셀라. 미디안 족속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시83:12)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시83:18)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만 홀로 온 땅 위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살후2:9-10)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요일4:4)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16. 대환란 때에 드러날 세계 종교

(민25:1-8) 이스라엘이 시탐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브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사람들 곧 바알브올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행17:26-27)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계2:14)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네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창49:17) 단은 길가의 뱀이요, 통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신33:22) 단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단은 사자 새끼요, 그가 바산에서 뛰어 나오리로다, 하니라.

(삿18:4)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나를 이리이러하게 대우하여 나를 고용하였으며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노라, 하매

(삿18:19)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혹은 이스라엘 안의 한 가족 곧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니

(삿18:20) 그 제사장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하고 그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슥11:17) 그 양 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삿18:30-31) 단 자손이 그 새긴 형상을 세웠으며 므낫세의 손자요, 게르숨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니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세웠더라.

(왕상16:29-33) 유다 왕 아사의 제삼십팔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며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왕상18:24-28) 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하나님이니시니라, 하매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그런즉 너희를 위해 먼저 소 하나를 택하여 예비하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는 말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준 소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서 쟁충 쟁충 뛰더라.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이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 하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왕하10:22) 예후가 예복실을 담당하는 자에게 말하되, 예복을 가져다가 모든 바알 숭배자에게 주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오니

(계2: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계17:1-8) 또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중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중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네게 말하여 주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닷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

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약4:1-4)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고전6:15-20)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나?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나?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18:1-8)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 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 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 주라.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روی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 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17. 세계 종교의 본부

(창10:25)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욥단이며

(창11:1-9)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

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흠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흠으셨더라.

(창6:1-6)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단12:4)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달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음질하

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창11:2)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단3:6) 누구든지 옹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 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단1: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속5:5-11)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대언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사느냐? 오직 내가 내 중 대언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이 너희 조상들을 붙잡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더니 그대로 우리를 다루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라. 다리오의 제이년 십이월 곧 스바월 이십사일에 주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밀바닥에 있던 은매화나무들 사이에서 있으며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얼룩진 말과 흰 말들이 있기에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하거늘 은매화나무들 사이에서 있던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니라. 그들이 은매화나무들 사이에서 있던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기저기 땅에 두루 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 중에 있더라, 하더라.

(겔22:18)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다 용광로 한가운데 있는 녹과 주석과 쇠와 납이며 심지어 은 찌꺼기로도.

(슥5:7) 또, 보라, 납 일 달란트가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 있는 여인이라.

(마13:33)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 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계2: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네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계17:1-7) 또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고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졌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

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짐승 곧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네게 말하여 주리라.

(슥5:9)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오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잠30:15) 말거머리에게, 다오. 다오, 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니

(마13:4)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 버렸고

(마13:19)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 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마13:31-32)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전10:20) 왕을 저주하지 말되 네 생각 속에서도 말며 네 침실에서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리로다.

(속5:1-5) 그때에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 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내가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이십 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십 큐빗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 위로 나아가는 저주니라. 도둑질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이쪽에서 끊어지며 맹세하는 자마다 그 저주대로 저쪽에서 끊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 저주를 내놓으리니 그것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 한가운데 머무르며 그 집의 목재와 돌과 아울러 그 집을 소멸시키리라. 그때에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네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계13:11-14)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계13:16-18)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계20:4)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

(계6:9-10)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이까? 하더라.

(계13:5)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계6:11)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18. 바빌론과 그 몰락

(계18:2)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계17:1) 또 일곱 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계17:15)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계17:2)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계18:3)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렘51:7)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계17:4)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졌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렘50:37) 칼이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녀의 한가운데 섞여 사는 모든 백성들 위에 있나니 그들이 여자들같이 될 것이요, 칼이 그녀의 보물들 위에 있나니 그것들이 탈취를 당하리라.

(계17:6)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계18:24)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계17:4)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졌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렘51:7) 바빌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렘51:45)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오지아다. 너희는 각각 주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자기 혼을 건질지아다.

(계17:9)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라.

(계17:16-18) 네가 본 열 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계18:3)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18:23) 등잔불 빛이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

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네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렘50:25-26) 주가 자신의 무기고를 열고 자신의 격노의 무기들을 가져왔으니 이것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주 만군의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니라. 먼 지역으로부터 와서 그녀를 치고 그녀의 창고를 열며 그녀를 무더기같이 쌓아 올리고 그녀를 진멸하며 그녀의 소유 중 아무것도 남기지 말지니라.

(렘50:37-38) 칼이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그녀의 한가운데 섞여 사는 모든 백성들 위에 있나니 그들이 여자들같이 될 것이요, 칼이 그녀의 보물들 위에 있나니 그것들이 탈취를 당하리라. 가뭄이 그녀의 물들 위에 있으며 그 물들이 마르리니 이는 그 땅이 새긴 형상들의 땅이요, 그들이 자기 우상들에 미쳤기 때문이니라.

(계14:8)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슥1:4-6) 내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주민들 위로 내 손을 내밀어 바알의 남은 자들을 이곳에서 끊으며 또 그마립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끊고 지붕에서 하늘의 군대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또 경배하며 주를 두고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과 뒤로 물러나 주를 떠나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며 그를 위하여 묻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렘51:25) 주가 말하노라. 오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내밀어 너를 바위들로

부터 굴러 내리게 하고 너로 하여금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계17:3)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욥41:33) 땅 위에는 것처럼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느니라.

(렘51:42) 바다가 바벨론 위로 올라왔으므로 그녀가 바다의 많은 파도에 덮였도다.

(계17:16) 네가 본 열 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눅4:6)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계17:17)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슥5:9-11)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오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그때에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시날 땅에 집을 지어 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사21:8-9) 외치기를, 사자다, 하고, 내 주 인이여, 내가 낮에 계속해서 파수대에 서 있었으며 밤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는데 보소서, 사람들의 병거가 두 명의 마병과 함께 여기로 오나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그분께서 다 부수어 땅에 던지셨도다, 하더라.

(계18:9)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روی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계18:11)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계18:17-18)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모든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렘50:46) 바빌론을 탈취하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민족들 가운데 들리느니라.

(계18:2)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사13:19)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때와 같이 되리니

(사13:22) 섬들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황폐

한 집에서 부르짖으며 그들의 좋은 궁궐에 서는 용들이 부르짖으리라. 그녀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은즉 그녀의 날들이 연장되지 아니하리라.

(렘50:39)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들이 섬들의 들짐승들과 함께 거기에 거하고 올빼미가 그 안에 거할 것이요, 그곳은 영원토록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대대로 그곳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렘51:37) 바빌론이 무더기가 되고 용들의 거처가 되며 거주민이 없어 놀랄 일과 비웃음거리가 되리라.

(렘51:48) 그때에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인하여 노래하리니 이는 노략하는 자들이 북쪽에서 나와 그녀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계18:20)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19. 야곱의 고난 후반부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계13:11-18)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

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렘51:13-18) 오 많은 물들 위에 거하며 보물이 풍부한 자여, 너의 끝 곧 너의 탐욕의 한계가 이르렀느니라. 만군의 주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사람들로 너를 채우되 썰기벌레로 채우는 것 같이 채우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호성을 높이리라, 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도다. 그분께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의 끝에서 수증기가 오르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들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사람마다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되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였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며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도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잘못 만든 것이니 그것들을 징벌하실 때에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렘51:47)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바빌론의 새긴 형상들에게 심판을 내리리라. 그녀의 온 땅이 당황하고 그녀의 죽임 당한 자들이 다 그녀의 한가운데서 쓰러

지리라.

(계13:5-8)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계17:17)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계17:12-13)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창1:26)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단9: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단11:30-31) 이는 것덤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

며 돌아가서 격노하여 거룩한 언약을 대적 하리라. 그가 이와 같이 행하며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군사들은 그의 편에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단8:11-12)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죄로 인하여 그분께서 한 군대를 그에게 주사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마24:15)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이다.)

(살후2:3-4)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 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겔8:1-6) 제육년 유월 곧 그 달 오일에 나는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었는데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려와 내 위에 임하시니라. 그때에 내가 보니, 보라, 불의 모양같이 생긴 것이 있더라.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에는 불이 있었고 그분의 허리로부터 위는 마치 광채의 모양 같고 호박색 같았는데 그분께서

손의 형체를 내미사 내 머리털 타래로 나를 잡으시매 그 영께서 나를 들어 땅과 하늘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북쪽을 바라보는 안쪽 문의 입구에 이르시니라. 거기에는 질투의 형상 곧 질투를 일으키는 형상의 자리가 있더라. 또,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평야에서 본 그 환상과 같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라, 하시기에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한 길을 바라보니, 보라, 제단 문에서 북쪽으로 어귀에 질투의 이 형상이 있더라. 그분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그들이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이스라엘의 집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내가 내 성소를 떠나 멀리 가게 함을 네가 보느냐? 그러나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네가 보리라, 하시더라.

(사14:13)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화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출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별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5: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별하여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수24: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

룩한 하나님이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요
로 너희 범죄와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
리라.

(단7:19-26) 그때에 내가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 짐승은 다른 모
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
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놋이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
았더라.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또
숫아 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
는데 그것 앞에서 세 개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도 있고 심히 큰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
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마침내 옛
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
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
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그
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
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
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
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
르고 또 세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
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만 때까지 그의 손
에 주어지리라. 그러나 심판이 진행되즉 그
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
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단8:25)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
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
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
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사10:5-13)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격
노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을 보이는 민
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
의 백성을 쳐서 노략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
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그러
나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시
키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통치자들
은 다 왕이 아니냐? 갈노는 갈그미스와 같
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
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커스와 같지 아니하
냐? 내 손이 우상들을 섬기는 왕국들을 이
미 찾아내었나니 그 왕국들의 새긴 형상들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뛰어
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
에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
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그
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 산과 예
루살렘에 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
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손의 힘
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분별
있는 자라.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기며 그들
의 보화를 강탈하고 또 용감한 자같이 거주
민들을 낮추었노라.

(단11:36-44)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
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격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
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
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
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오직 그는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귀한 보석과 기뻐하는 것
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공경

하리라. 그가 가장 견고한 요새들에서 한 이방 신과 더불어 이같이 행하며 그 신을 인정하고 그 신에게 영광을 더해 줄 것이요,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그 땅을 나누리라. 끝이 임하는 때에 남쪽 왕이 그를 향해 밀고 나올 터이나 북쪽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바람같이 와서 그를 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흘러넘치며 지나가리라.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손을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며 그가 금과 은의 보물과 이집트의 모든 귀한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질 것이요, 리비아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도 그의 발밑에 있으리라.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나오는 소문이 그를 근심하게 하므로 그가 크게 격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멸하며 완전히 없앨 것이요,

(삼상8:18) 그 날에 너희가 택한 너희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르짖을 터이나 주께서 그 날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호13:10-11) 내가 네 왕이 되리라. 네 모든 도시에서 너를 구원할 다른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통치자들을 주소서, 하더니 그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친히 분노하여 네게 왕을 주고 친히 진노하여 그를 폐하였도다.

(요1:11)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요19:19)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의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행3:15)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우리는 그 일에 증인이니라.

(계12:5)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여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겔21:25-27) 너 더럽고 사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네 날이 이르렀나니 그때에 불법이 끝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기라. 이것이야 예전과 같지 아니하리니 낮은 자는 높이고 높은 자는 낮출지니라. 내가 그것을 거꾸러뜨리고 거꾸러뜨리며 거꾸러뜨리리니 그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그것의 권리를 가진 자가 이르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주리라.

(계17:17)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20. 정사들과 권능들

(겔 28:11-15)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야,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복과 네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

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
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사14:12-15)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
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
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
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
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
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
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창6:1-6)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
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
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
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
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
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딸들에
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
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
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욥38:7)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
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기뻐 소리를 질
렀느냐?

(눅3:38) 계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
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창5:3)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
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
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고전1:30)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
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
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
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롬5:19)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
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
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
도다.

(갈6:15)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
만 있느니라.

(요1:12)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
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
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욥1:6)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들이 자
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창6:2-4) 하나님의 아들이들이 사람들의 딸
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
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
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
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
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창6:1-6)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람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시78:49) 그들 가운데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격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요6:70)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행14:11)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단10:13)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단10:20-21) 그때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령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계12:3-4)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단2: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쇠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계16:13-14)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24:37)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눅17:26)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21.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여행

(시107:1-7)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시니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의 외딴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주리고 목마르매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렘16:14-15)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겔20:33-34)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강한 손과 뚝은 팔과 쏘아 붓는 격노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또 강한 손과 뚝은 팔과 쏘아 붓는 격노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

에서 너희를 모으고

(겔36:24)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겔20:37)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렘16:16-18)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그들을 낚게 할 것이요, 그 뒤에 사람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 위에 있으므로 그들이 내 얼굴을 떠나 숨지 못하며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내 땅을 더럽히며 자기들의 역겹고 가증한 것들의 사체들로 내 상속 재산을 가득 채웠으므로 내가 우선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두 배로 갚으리라.

(렘30:11-14)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흠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으며 네 부상은 중하다. 네 사정을 변호하여 너를 싸매 자 없으며 너를 고칠 약도 네게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너를 잊었고 너를 찾지 아니하나니 네 불법이 많으므로 내가 원수의 상처와 잔인한 자의 징계로 너를 상하게 하였느니라. 네 죄들이 늘어났느니라.

(사54:7-8) 내가 아주 잠시 동안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조

금 진노하는 중에 내 얼굴을 잠시 네게 숨겼으나 영존하는 친절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주가 말하노라.

(슥13:8)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의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삼분의 일만 그 안에 남으리라.

(겔20:34-38) 또 강한 손과 뻗은 팔과 쏟아붓는 격노로 너희를 백성들에게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으고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내가 이집트 땅의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변론한 것 같이 너희와 변론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숙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범법을 행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슥13: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제하듯 그들을 정제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말3:1-3)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겔22:19)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런즉,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겔22:22) 은이 용광로 한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의 한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주가 내 격노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24:16)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이다.

(호2: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계12:14-16)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 받게 하려 함이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호2: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르고

(사26:20-21) 내 백성이아, 울지어다. 너는 네 방들로 들어가 네 주변의 네 문들을 닫고 격노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지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리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 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계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 받게 하려 함이라.

(호2:15) 또 그때부터 그녀의 포도원을 그녀에게 주며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리니 그녀가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에 하던 것 같이 거기서 노래하리라.

(시78:2)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니

(눅21:2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떠나가며 시골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이다.

(호13:13)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이니라. 그는 아이들을 쏘아 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암5:19)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계12:14-16)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 받게 하려 함이라.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렘46:7-9) 홍수같이 올라오는 이 자가 누구냐? 홍수 같은 물들이 강물처럼 움직이는도다. 이집트는 홍수같이 일어나고 그것의 물들은 강물같이 움직이는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땅을 덮고 그 도시와 그것의 거주민들을 멸하리라, 하는도다. 말들아, 너희는 올라올지이다. 병거들아, 너희는 성내어 날뛰지이다. 용사들 곧 방패를 쓰는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리비아 사람들과 활을 쓰고 당기는 루디아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올지니

(욥40:23)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시107:33-34) 그분께서는 강들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물 샘들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결실의 땅이 변하여 불모지가 되게 하시고

(민16:32)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출15:4)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시107:1-7)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곧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

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주리고 목마르매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시18:1-6) 오 나의 힘이 되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홍수가 나를 무섭게 하였으며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라미들이 나보다 앞서 갔도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니 내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되 그분의 귀에까지 이르렀도다.

(시31:3)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시42:9)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시71:3) 주께서는 내가 항상 드나드는 나의 견고한 거처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명령을 주셨으니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니이다.

(렘31: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나 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

니 곧 이스라엘이라. 그때에 내가 그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려고 나아갔노라.

(계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라.

(미7:14)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 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 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렘50:19-20)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거처로 데려오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고 그의 혼이 에브라임 산과 길르앗에서 만족하리로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 때에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내가 남겨 놓는 자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겔20:35) 백성들의 광야로 너희를 데려가 거기서 너희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변론하되

(미7:14-15)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곧 갈멜의 한가운데서 숲 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 떼를 먹이시되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시옵소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시105:40) 백성이 구한즉 그분께서 메추라기들을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시78:16)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시107:35-37) 또 광야가 변하여 서 있는 물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물 샘들

이 되게 하시고 주된 자들로 하여금 거기 거하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를 마련하게 하시며 들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만들어 그것이 소출의 열매를 내게 하시며

22. 야곱의 고난 두 번째 절반에 해당되는 시기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

(사28:23-29)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하는 자가 하루종일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자기 땅의 흙덩어리를 캐내어 부수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완두를 뿌리고 근채를 뿌리며 으름가는 밀과 미리 정한 보리와 호밀을 뿌릴 곳에 뿌리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훈을 주사 분별하게 하시며 또 그를 가르치시느니라. 완두는 타작하는 기구로 타작하지 아니하고 근채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오직 완두는 막대기로 떨어 근채는 작대기로 떨어 빵을 만드는 곡식은 빵나니 이는 그분께서 늘 타작만 하거나 자신의 수레바퀴로 그것을 빵기만 하거나 자신의 기병들로 그것을 빵기만 하지는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 또한 만군의 주로부터 나오나니 그분은 계획하는 것에서 놀라우시며 행하는 일에서 뛰어나시도다.

(마21:44)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단2:35)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갈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미6:9) 주의 음성이 도시를 향하여 부르짖

는도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이름을 보리이다. 너희는 매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정하신이의 말을 들으라.

(렘48:17)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여, 너희는 그를 위해 탄식하라.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하여 튼튼한 지팡이, 아름다운 막대기가 부러졌는가! 할지니라.

(겔19:11-14) 다스리는 자들의 훌(笏)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녀의 키가 굵은 가지들 사이에서 크므로 그녀가 자기의 많은 가지들과 함께 높이 드러났느니라. 그러나 그녀가 격노 중에 뽕혀 땅에 내던져지매 동풍이 그녀의 열매를 말리고 그녀의 강한 막대기들은 부러지며 말라 불에 소멸되었으며 이제 그녀가 광야 곧 메마르고 갈증 나는 땅에 심기매 불이 그녀의 가지들의 한 막대기에서 나와 그녀의 열매를 삼키니 이에 그녀가 다스리는 훌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하라. 이것이 애가요, 반드시 애가가 되리라.

(사10:12)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렘50:17) 이스라엘은 흠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쫓아내었도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마지막에는 이 바빌론 왕 느부갓레살이 그의 뼈들을 꺾었도다.

(히2:14)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고후12:7)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5:1-5)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피해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10:15)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톱이 톱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움직이려 하며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 함과 같도다.

(계6:7-8)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사분의 일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행9:4)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매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계9:1-2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 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또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는 명령을 그것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으니 곧 바닥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말로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말로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므로, 보라,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리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

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 둔 네 천사를 풀어 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대의 수는 이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건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3:4)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 꿀이더라.

(레11:21-22) 네 발로 가며 기고 나는 것 중에서 발 위에 다리가 있으므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나니 곧 그 중에서 이것들 즉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베짖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계9:4)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

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출10:3-20)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려느냐?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이 가는 것을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일 네 지경 안으로 메뚜기들을 가져오리니 그것들이 지면을 덮어서 아무도 능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메뚜기들이 네게 남아 있는 것 즉 우박을 피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또 들에서 너를 위해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고 또 네 집과 네 모든 신하들의 집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득하리니 그것은 네 조상들이나 네 조상들의 조상들이 땅에 존재한 날로부터 이 날까지 보지 못한 것이리라, 하고 그가 몸을 돌이켜 파라오를 떠나 밖으로 나가니라.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다시 데려오매 파라오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갈 자들은 누구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가되 우리의 젊은이와 늙은이와 아들딸과 양 떼와 소 떼와 함께 가겠나이다, 하매 파라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것들을 보낼 때에 주가 너희와 함께할지니라. 그 일을 조심하라. 너희 앞에 악이 있느니라.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너희가 구하는 바가 그것이니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이집트 땅 위에 내밀어 메뚜기들을 데려오고 그것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채소 곧 우박이 남겨 놓은 모든 것을 먹게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자기의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그 땅에 동풍을 가져오사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아오매 메뚜기들이 이집트 온 땅에 이르러 이집트의 온 지경 내에 머물며 그들을 심히 괴롭게 하였더라. 그런 메뚜기들은 그것들 전에도 없었고 그것들 후에도 없을 그런 것이더라.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으매 땅이 어둡게 되었더라. 또 그것들이 그 땅의 모든 채소와 우박이 남겨 놓은 나무들의 모든 열매를 먹었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던 나무나 들의 채소 중에서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내 죄를 이번에만 번만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므로 그가 파라오를 떠나 밖으로 나가서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강하고 강력한 서풍을 일으키시니 그것이 메뚜기들을 가져다가 홍해에 몰아넣으매 이집트의 온 지경 내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퍽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계9:11)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으니 곧 바닥없는 구렁이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말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잠30:27)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계9:2-11) 그가 바닥없는 구렁이를 여니 그 구렁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렁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또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는 명령을 그것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으니 곧 바닥없는 구렁이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말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계9:1-1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없는 구렁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없는 구렁이를 여니 그 구렁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렁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또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는 명령을 그것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으니 곧 바닥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말로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말로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계9:5-6) 또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는 명령을 그것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계9:11)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으니 곧 바닥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말로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말로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계9:4-6)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

라. 또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는 명령을 그것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계9:11)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으니 곧 바닥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말로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말로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계9:3-10).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또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는 명령을 그것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사28:15-22)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

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겼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잇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또한 줄에 따라 공의를 부과하며 추에 따라 의를 부과하리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휩쓸며 물들이 그 숨는 곳에 넘치리라. 그런즉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가 되며 지옥과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 너희가 그것에 의해 짓밟히리라. 그것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너희를 붙잡으리라. 아침마다 그것이 지나가며 밤낮으로 지나가리니 그 소식을 깨닫는 것이 다만 괴로움이 되리라. 침상은 사람이 그 위에서 몸을 피기에 너무 짧고 이불은 그가 그 속에서 몸을 감싸기에 너무 좁으리라. 주께서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신 것 같이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 같이 진노하사 자신의 일 곧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자신의 행사 곧 기이한 행사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를 결박한 끈들이 단단해질까 염려하노니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땅을 소멸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들었느니라.

(계16:10-11)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으매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과 험테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8:19-22)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

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위를 쳐다보며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사22:4-7)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를 쳐다보지 말라. 내가 몹시 슬피 울리라. 내 백성의 딸이 노락을 당하였으니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라, 하였노라. 그것은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환상 골짜기에 고난과 짓밟음과 혼란이 임하게 하시므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요, 산을 향해 부르짖는 날이로다. 엘람은 사람을 태운 병거와 마병들과 더불어 화살 통을 메었고 기르는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들이 너의 가장 좋은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들이 성문에서 전열을 갖추리라.

제4장 재림

23. 그러는 동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계4:1)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더라.

(요10:1-9)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목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목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

(고후11:1-3)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엡5:32)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5:27)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런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

게 하려 하심이라.

(계19:7-9)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빌3:20-21)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시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고전15:51-57)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되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일3:1-3)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고후5:9-10)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 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고전3:9-15)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딤후5:24-25)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롬14:10-13)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는 사람이 없는지 판단할지니라.

(벧전5:4)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약1:12)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冠)을 받으리라.

(계2:10) 네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고전9:25-27)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빌4:1)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살전2: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冠)이 무엇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딤후4:8)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히12:2)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마5:12)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막9:4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만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고전9:18)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나?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

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골2:18) 아무도 꾸며 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딤후5:18)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삷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눅19:11-27)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열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십 므나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십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오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 므나를 빼앗아 십 므나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십 므나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계2: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2: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계2: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 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시78:25)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계2:26-27)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계2:24)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눅4:6)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계17:12)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계3:5)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3:12)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은2:9)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전3:14) 내가 알지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3:15)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창15:1)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시19:11)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다.

(고전3:8)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골2:18) 아무도 꾸며 낸 겉문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24. 이삭줍기

(계14:15-16)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계7:9-14)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

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고후5: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13: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약1:27)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계13:15)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계7:1-4)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십사만 사천이더라.

(계14:1-5)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양께서 시온 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를 하프를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십사만 사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양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계15:2-4)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

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아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계11:11-12)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 시므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히12:23)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약5: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계11:12)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행1:9-12)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이어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에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계1:7)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찢은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속12: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광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찢은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마24:29-31)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 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마25:1-13)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의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터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시18:16-20)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들에서 나를 끌어 내셨으며 나의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셨나니 내가 감당하기에 그들이 너무 강하였도다. 그들이 내 재앙의 날에 나보다 앞서 갔으나 주께서 내 버팀 기둥이 되셨으며 또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건지셨도다. 주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 주셨으니

(히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리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야2:8-14)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 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와도 같고 젊은 사슴과도 같으니,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뱀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오 바위틈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네 목소리가 달콤하며 네 얼굴이 아름답도다.

(사26:14-21) 그들은 죽었은즉 살지 못하였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며 멸하시라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사라지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번창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번창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나이다. 주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를 찾았사오며 주의 징계가 자기들 위에 임할 때에 기도를 쏟아 부었나이다. 오 주여, 아이 벤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이르러 고통 중에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눈앞에서 그러하였나이다. 우리가 아이를 배고 고통 중에 있었으나 마치 바람 같은 것을 낳아서 우리가 땅에서 어떤 구출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거주민들도 넘어뜨리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울지어다. 너는 네 방들로 들

어가 네 주변의 네 문들을 닫고 격노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리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 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계16:16) 그가 히브리말로 아말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마25:6)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시45:8-14) 왕의 모든 옷은 상아 궁궐에서 나오는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네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에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네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눅22:16-3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빵

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기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진실로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 중에 이런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 끼리 묻기 시작하더라. 또한 그들 사이에 그분께서 자기들 중의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다툼이 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계19:9)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마26: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

시니라.

(마22:11-14)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네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하니라.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25.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

(슥12: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계1:7)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계14:6-7)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렘50:4-5)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되

그들이 올면서 가고 그들이 가서 주 곧 자기의 하나님을 구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걸고 잇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사66:7-14)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낳게 하고는 태를 달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애곡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로써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또 젖을 짜며 그녀의 풍성한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 때에 너희가 젖을 빨며 또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춤을 추리라. 어머니의 위로를 받는 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터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것을 볼 때에 너희 마음이 기뻐하며 너희 뼈들이 채소같이 무성하게 되리라. 또 주의 손이 자신의 종들에게 나타나며 그의 격노가 자신의 원수들에게 나타나리라.

(겔36:25-29) 그 때에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부정함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곡식을 부르고 그것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 위에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렘50:20)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내가 남겨 놓는 자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렘33:8)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또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죄를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법을 행하였느니라.

(사45:25) 이스라엘의 모든 씨는 주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하리로다.

(행3:19)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사44:21-22)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범 죄들을 뺨뺨한 구름같이, 네 죄들을 구름같이 지워 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슥3:9)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

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단9:26-27) 욕심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러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यो,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히8:10-12)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 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공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26. 아마겟돈과 재림을 위한 준비

(계16:18)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사2:19-21)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

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틈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터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यो,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계11:12-13)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의 칠천 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계10:5-7)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러니와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계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창1: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고후4:4)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눅4:6)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요일2:2)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현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현물이시니라.

(마28:1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시110:5-7)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처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길에 있는 시내에서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머리를 드시리로다.

(미5:2)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야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계16:12-16)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으매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사11:15)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혀 같은 부분을 철저히 멸하시고 자신의 강한 바람과 더불어 자신의 손을 강 위로 흔드사 강을 치시고 일곱 갈래로 나누사 사람들이 산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게 하시리라.

(렘51:63)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마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묶어 유프라테스 한가운데로 그것을 던지며

(을8:14)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사22:6-9) 엘람은 사람을 태운 병거와 마병들과 더불어 화살 통을 메었고 기르는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들이 너의 가장 좋은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들이 성문에서 전열을 갖추리라. 그가 유다의 덮은 것을 벗기매 그 날에 네가 숲의 나무로 만든 집의 병기를 보았노라. 또 너희가 다윗의 도시의 무너진 곳이 많음도 보고 아래 연못의 물도 함께 모으며

(계16:12-16)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으매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히브리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리라.

(계17:12-14) 네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들이 어린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슥14:1-2)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네게서 노략한 물건들을 네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 중의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슥3:8)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격노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마13:39-40)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27. 재림과 하나님의 진노

(계11:14-15)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рода, 하니

(계11:16-18)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출15:3) 주께서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슥1:15) 그 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마24:43)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시18:7-15)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분의 쿿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 불에 의해 숲이 피었도다. 그분께서 또한 하늘

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니 그분의 발밑에 어둠이 있었도다.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그분께서 어둠을 자신의 은밀한 처소로 삼으셨으니 곧 어두운 물들과 창공의 짙은 구름들이 그분을 둘러싼 그분의 천막이 되었도다. 그분 앞에 있던 광채로 말미암아 그분의 짙은 구름들과 우박들과 숯불들이 사라졌도다. 또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셨으니 곧 우박들과 숯불들이로다. 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내보내사 그들을 흠으시고 번개들을 쏘사 그들을 쳐부수셨도다. 오 주여, 그때에 주의 꾸짖으심 곧 주의 콧구멍의 숨의 거센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들의 바닥들이 보이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나이다.

(계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시82:8) 오 하나님여, 일어나사 땅을 심판하소서.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상속하시리이다.

(딤후4:1)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계14:17-20)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율3:9-15)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깨우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아와 올라오게 할지이다.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이다. 너희의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이다.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이다. 울지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익었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며 그들의 사악함이 크도다.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도다.

(사63:1-3)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 자가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 자가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만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계14:20)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에까지

닿았으며 천육백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대하35: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그에게서 자기 얼굴을 돌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그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므깃도 골짜기에서 싸우려 가니라.

(속12:11) 그 날에 마치 므깃돈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수12:21)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므깃도 왕이요,

(수17:11) 잇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으니 곧 벤스안과 그것의 고을들과 이블르암과 그것의 고을들과 도르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과 또 엔들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과 다아낙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과 므깃도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 곧 세 지역이라.

(삿1:27) 므낫세도 벤스안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다아낙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도르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이블르암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므깃도와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시68:21-23)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의 머리와 여전히 계속해서 범법하는 자들의 털투성이 머리 가죽을 상하게 하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부터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바다의 깊음들로부터 다시 데려오리니 이것은 네 발을 네 원수들의 피에 담그게 하고 네 개들의 혀도 같은 것에 담그게 하려 함이

라, 하셨도다.

(계16:6)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마26:52)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롬12:19)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슥1:7-8) 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이다.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주가 희생을 예비하고 자신의 손님들을 초대하였느니라. 주의 희생물의 날에 내가 그 통치자들과 왕의 자녀들과 낯선 의복을 입은 자들을 다 벌하고

(시21:8-11)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주께서 분노하실 때에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삼키리로다.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멸하시리니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였나이다. 그들이 해를 끼치는 계락을 꾸뻬었으나 능히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나이다.

(사34:1-8) 민족들이여, 너희는 가까이 나아와 들을지이다. 백성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들을지니라. 주의 격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그분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임하

여 그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은 또한 내던져지며 그들의 사체들에서는 그들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산들이 녹으리라. 또 하늘의 모든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내 같이 하늘에서 흠뻑 적셔지리니, 보라, 그것이 이두매아 위에 임하며 나의 처주를 받은 백성에게 임하여 심판하리라. 주의 칼이 피로 충만하며 기름진 것과 어린양과 염소의 피와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지게 되었나니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물을 취하시고 이두매아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느도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고 수소들도 황소들과 함께 내려오매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으며 그들의 흠이 기름진 것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그 날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이요 시온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보응하시는 해니라.

(시2:1-9)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느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교도들을 네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네게 소

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계6:12-17)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2:10-21)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지니라. 그 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에 임하리니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 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들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이 바위틈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

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슥14:12-15)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 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요, 또 그 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시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으며 각 사람의 손이 일어나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며 사방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재산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풍성하게 함께 거두어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이 장막들에 있을 모든 짐승에게 임할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욥2:6)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나2:10) 그녀가 텅 비고 비어 피폐하게 되었다. 마음이 녹으며 무릎들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에 큰 고통이 있고 그들의 얼굴이 다 검게 되는도다.

(겔20:47)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들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속에 불을 붙이리니 그것이 네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불태워지리라.

(시68:2)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말4:1-3)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살후2:8)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계16:5-7)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하더라.

(사30:27-33) 보라, 주의 이름이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 채 멀리서부터 오며 그것의 엄중한 부담이 무겁도다. 그분의 입술은 격노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그분의 호흡은 넘쳐흘러 목의 중간에까지 미치는 시냇물 같아서 허무함의 체로 민족들을 제질하리라. 또 그분께서 백성의 턱에 재갈을 물리사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거룩한 의식을 지키는 밤에 행하는 것처럼 노래하며 사람이 피리를 불면서 주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능하

신 이에게로 나아갈 때처럼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리라. 주께서 자신의 영광스런 목소리가 들리게 하시며 자신의 분노의 격노와 또 삼키는 불의 불꽃과 흠여지게 하는 것과 폭풍우와 우박과 더불어 자신의 팔로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아시리아 사람 곧 막대기로 치던 자가 매를 맞으리라. 주께서 그 사람 위에 두실 지팡이가 곧 땅에 세우신 지팡이가 지나갈 모든 곳에서 그것과 함께 작은복과 하프가 있을 것이요, 진동하는 전투에서 그분께서 그것을 가지고 싸우시리라. 도벳은 옛적부터 정하여졌으며 참으로 그 왕을 위하여 그것이 예비되었도다. 그분께서 도벳을 깊고 넓게 만드셨으며 불과 많은 나무로 그것의 더미를 쌓으셨으니 주의 호흡이 유향 시내같이 그것에 불을 붙이느니라.

(렘25:29-32)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 는 도시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한즉 너희가 완전히 형벌을 면하겠느냐? 너희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니 내가 칼을 불러 땅의 모든 거주민 위에 임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향하여 대언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가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처소 위에서 힘차게 외치고 포도를 밟는 자들같이 땅의 모든 거주민을 향하여 고향을 지르리라.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 끝까지 이르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와 변론하고 사악한 자들을 칼에 내어 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아가 민족에서 민족에게 이르고 큰 회오리바람이 땅의 경계에서 일어나리라.

(아6:10-13) 아침같이 찬란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내가 골짜

기의 열매들도 보고 포도나무가 무성하며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맺는지도 보려고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더니 내가 미처 알기도 전에 내 혼이 나를 암미나답의 병거들같이 되게 하였도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바라보려 하노라.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대의 무리와 같도다.

(창32:1-2)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삿5:19-20)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의 왕들이 므깃도 물가의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슌14:5)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욥3:11)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 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합3:8) 주께서 그 강들을 불쾌히 여기셨을까? 주께서 그 강들에게 분노하셨나이까? 주께서 그 바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주의 말들을 타시며 주의 구원의 병거들을 타셨나이까?

(욥25:3) 그분의 군대에 무슨 수효가 있느냐? 그분의 빛이 떠올라 닿지 않는 자가 누구냐?

(계19:13-14)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말4:1-3)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니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사30:5)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은총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 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말4:2)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사9:5-7)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는 불을 지피는 뿔감과 불사르는 일이 있으리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연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

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사13:1-18)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며 그들이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 곧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산들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되 큰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격노의 무기들이라.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 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고와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사람을 정금보다 귀하게 하되 심지어 오빌의 금광석보다 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

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 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리니 그것이 쫓기는 노루 같고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되리라. 그들이 저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며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도망할 터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그들과 연합하는 자는 다 칼에 쓰러지며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내던져져서 여러 조각이 나고 그들의 집들은 노락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강간을 당하리라. 보라,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때대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쳐서 조각을 내고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이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계19:11-16)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긴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슌2:10-11) 그들이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고 모욕하며 자신을 크게 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리니 그가 땅의 모든 신을 굶주리게 하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곧 이교도들의 모든 섬에서 나아와 그에게 경배하리라.

제5장 천년왕국 시대

28. 천년왕국에 대한 소개

(호6:1-3)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를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롬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고후3:13-14)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 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사60:1-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네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네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마13:43) 그때에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4:1-4)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니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을2:2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 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의 늦은 비를 내려 주시리니

(계11:6)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화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약5:17)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약5: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계20:1-4)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닷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리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바닷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

(계19:17-21)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 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향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마24:28)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
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눅17:37)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욥39:27-30) 네 명령에 따라 독수리가 날
아오르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느냐?
그것이 바위 곧 험준한 바위와 견고한 곳에
거하며 또 머물고 거기서 먹이를 찾으며 그
것의 눈이 멀리 바라보고 그것의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 당한 것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24:28) 또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
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눅17:37)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욥39:27-30) 네 명령에 따라 독수리가 날
아오르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느냐?
그것이 바위 곧 험준한 바위와 견고한 곳에
거하며 또 머물고 거기서 먹이를 찾으며 그
것의 눈이 멀리 바라보고 그것의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 당한 것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욥3:1-2) 보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
루살렘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에 내
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
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
론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
데로 흠어 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욥3:12)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
기로 올라올지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
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마25:31-46)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
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
에 두리라.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
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
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
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
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
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
었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
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
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
가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
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

렸나이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13:38-42)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

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앓아 있으리라.

(시50:1-5)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 앞에서는 불이 삼키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우가 있으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리로다.

(단7:26)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겔39:12) 이스라엘의 집이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묻어 그 땅을 정결하게 하겠고

(렘25:33) 그 날에 주에게 죽임 당한 자들이 땅이 끝에서부터 심지어 땅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도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리로다.

(행3:19)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요10:35)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창12:1-3)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

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29. 이스라엘의 회복

(창15:18-21) 바로 그 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행3:19)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을2:19-21) 참으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이끄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것들로 만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수치거리로 삼지 아니하며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의 뒷부분은 맨 끝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하시리라. 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일들을 행하시리라.

(겔34:26) 내가 그들과 내 산 주위의 처소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제때에 소나기를

내리리니 거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사11:10-13)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만백성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 찾아오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 자신의 손을 세우사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여러 섬으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하여 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사51:11) 그러므로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리니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터인즉 슬픔과 애곡이 달아나리이다.

(암9:14-15)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 된 것을 다시 돌이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여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삼하7:10)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처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처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시105:9-12)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

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네게 주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은 수적으로 몇 사람, 참으로 몇 사람이었으며 그 땅에서 나그네 였고

(겔36:8-15) 그러나, 오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를 뺏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오는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노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이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너희에게 씨를 뿌리리라. 또 내가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 즉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들은 건축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상태로 정착시키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행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위에서 견게 하리니 곧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소유하고 너는 그들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제부터 네가 그들에게서 다시는 사람들을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 땅이여, 네가 사람들을 삼키며 네 민족들을 앗아갔다, 하나니 그러므로 네가 다시는 사람들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민족들을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내가 다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 안에서 이교도들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리라. 또 네가 다시는 만백성의 모욕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네 민족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렘30:10-11)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네 씨를 그들의 포로 된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히 지낼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홀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렘16:14-15)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 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사43:5-7)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네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렘24:6)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고정하여 복을 주며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 그들을 세우고 혈지 아니하며 그들을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렘31:35-36)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의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에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암9:11) 그 날에 내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의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시19:7)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슥14:5-11)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웃시야 시대에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나와 함께 임하리라. 그 날에는 그 빛이 밝지도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주께서 아시는 한 날이 될 터인데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그러나 저녁때에 그것이 빛이 되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 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 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은 변하여 계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립몬에 이르기까지 평야같이 되리라. 또 그것이 들리고 그것의 본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리니 곧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

까지라.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로다.

(사4:2-6) 그 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살아 있는 자들 중에서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고 불리리니 이때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내시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또 주께서 시온 산의 모든 거처와 시온의 집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창조하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빛을 창조하시리니 모든 영광 위에 방벽이 있으리라. 또 장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며 폭풍우와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리라.

(신28:10)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신28:13) 또 주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주 네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슥3:11-13) 그 날에는 네가 네 모든 행위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네 한가운데서 네 교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제거할 터이므로 네가 다시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해 거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한가운데 남겨 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 속이는 혀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먹고 누울지라도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마26: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슥3:14-20) 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오 이스라엘아,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의 딸아,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주가 네 심판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내었노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가 네 한가운데 있으니 네가 다시는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네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중에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엄숙한 집회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을 터인데 그들은 네게 속한 자들이니라. 그 집회에 대한 모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보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없애고 다리 저는 여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여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때는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킬 때에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받는 자로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30. 천년왕국의 체제

(행2:29-30)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은 이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눅1:30-33)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미5:2) 그러나 너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야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시2:6)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욥2:32)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른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욥3:16)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로다. 그러나 주가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리로다.

(렘22:2) 이르기를, 오 다윗의 왕좌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들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들을지이다.

(마25:31)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겔48:35)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만 팔 천 갈대더라. 그 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가 되리라.

(슥8:1-8)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격노로 질투하였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으므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것의 거리에서 놀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어찌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슥9:16) 그 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계20:4-6)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며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갈5:21)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엡5:5)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골3:24)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계5:10)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딤후2:12)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롬8:17)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딤후2:12-13)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겔34:20-30)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진 가축과 야윈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떠밀고 모든 병든 것을 너희 뿔로 밀어내어 마침내 그들을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다시는 그들이 먹이가 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가축과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들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거하며 수풀 가운데서 잠을 자리라. 내가 그들과 내 산 주위의 초소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제때에 소나기를 내리리니 저기에 복의 소나기가 있으리라. 그리한즉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으며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또 내가 그들의 명예의 매는 것을 꺾고 그들에게서 섬김을 받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냈을 때에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그들이 다시는 이교도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하고 땅의 짐승도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안전히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초목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

서 기근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이교도들로 말미암은 수치도 다시는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들이 이와 같이 나 주 곧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겠고 그들 곧 이스라엘의 집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호3: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렘30:9) 오히려 그들이 주 곧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사61:4-6)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의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타국인들은 서서 너희 양 떼를 먹이고 외국인들의 아들들은 너희의 쟁기 가는 자와 포도원을 가꾸는 자가 되려니와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왕상4:21)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 경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왕국을 통치하였으므로 그들이 예물을 가져 와서 솔로몬의 평생 동안 그를 섬겼더라.

(단7:27)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단7:13-14)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히1:8)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 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笏)은 의의 홀이니이다.

(단7:1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단7:22)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단7:27)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31. 천년왕국에서의 창조 세계

(호2:18)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과 땅의 기어 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으며 또 그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중단시켜 그들이 안전하게 눕게 하리라.

(호2:22)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예스라엘의 말을 들으리라.

(마19:2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느니라.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롬8:20-22)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런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눅2:14)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하니라.

(신11:13-17) 내가 이 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너희 마음을 다 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 때에 주리니 네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네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굶어 죽어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을3:18) 그 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

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로다.

(속14: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 되 그것의 반은 앞 바다로 그것의 반은 뒤 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속14:4) 그 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 산이 거기의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속14:10-11) 그 온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야 같이 되리라. 또 그것이 들리고 그것의 본 처소에 사람이 거주하리니 곧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째 문이 있는 곳과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틀이 있는 곳까지라.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완전히 거주하리로다.

(미1:3-4)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의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지는 물들같이 그리되리라.

(사30:26)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그들의 매 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배나 되어 일곱 날의 빛 같으리라.

(사30:23)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가 땅에 뿌릴 네 씨에게 비를 주시며 땅의 소출인 빵을 주시리니 그것이 기름지고 풍성하리라. 그 날에 네 가축이 넓은 초장에서 먹고

(사35:1)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시67:6) 그때에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암9:13)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작은 산들은 다 녹으리라.

(사55:12-13)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화평으로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 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사65:20-25)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백 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백 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들이 집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을 세워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짓되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심되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려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주에게 복 받은 자의 씨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

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속8:4)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높은 남자와 높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으므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히12:26)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사24:20)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죄가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사65:25)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모든 산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32. 천년왕국에서의 경배와 심판

(시9:8-9)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른으로 만백성에게 심판을 베푸시리로다. 주께서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에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사2:2-5)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

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사26:5-13)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땅에까지 낮추시며 먼지가 되기까지 낮추시나니 발이 그것을 짓밟되 곧 가난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 그리하리로다. 곧바름이 의인의 길인즉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의인의 행로를 다시는도다.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곧 우리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오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사악한 자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하지 아니하오나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주여,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하시리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며, 주 외에 다른 주(主)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사오나 우리가 오직 주를 힘입어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사2:1-4)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미4:1-2)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슌8:21-23)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열 사람이 나와서 불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시68:25-33)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 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니 그들 가운데는 작은북을 치는 처녀들도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이다. 거기에는 작은 베냐민과 그들의 치리자와 유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공회와 스불론의 통치자들과 납달리의 통치자들이 있도다. 네 하나님께서 네 힘에게 명령하셨도다. 오 하나님이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오리이다. 창을 든 병사의 무리와 황소 떼와 만백성의 송아지들을 함께 꾸짖으시되 각 사람이 은 조각을 가져오며 복종하기까지 그리하소서. 주께서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홀으소서.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리니 이디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곧 자기 손을 내밀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노래하라. 오 노래로 주를 찬양할지이다. 셀라. 옛적부터 있던 하늘들의 하늘들을 타신 분에게 찬송할지이다. 보라,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보내시니 곧 웅장한 음성이로다.

(사66:18-21)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내가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루트와 두발과 아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주에게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사35:8-10) 또 거기에 큰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이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로다.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시22:27-28) 세상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렘3:14-19)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되 도에서 하나와 가족에서 둘을 취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가고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변성하여 불어날 때에 곧 그 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주의 언약 궤라,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방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좌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그 날들에는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과 함께 걷고 그들

이 북쪽의 땅에서 함께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땅에 이르리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너를 자녀들 가운데 두며 허다한 민족들의 아름다운 유산인 이 기쁨의 땅을 네게 주리요? 하였고 또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하였노라.

(히8:8-11)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슌13:2-3)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겔45:1-5) 또 너희가 제비뽑아 상속 재산으로 그 땅을 나눌 때에 그 땅의 거룩한 몫

을 봉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그 길이는 이만 오천 갈대의 길이로 하고 그 너비는 만 갈대가 될지니 이것은 돌아가며 그것의 모든 경계 안에서 거룩하리라. 이것 중에서 성소를 세울 땅은 길이가 오백 갈대, 너비가 오백 갈대로 돌아가며 네모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주변 지역은 돌아가며 오십 큐빗이 되게 할지니라. 이 측량한 것 중에서 너는 길이 이만 오천 갈대와 너비 만 갈대를 측량하여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할지니라. 그 땅의 그 거룩한 몫은 주를 섬기러 가까이 나아올 제사장들 곧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한 곳이 되리니 그것은 그들의 집들을 세울 장소가 되며 또 성소를 세울 거룩한 장소가 되리라. 또한 레위 사람들 곧 그 집에서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길이 이만 오천 갈대와 너비 만 갈대의 땅을 차지하되 스무 개의 방을 지을 소유로 차지할지니라.

(겔44:10 -14) 이스라엘이 결길로 나갔을 때에 내게서 멀리 떠나간 레위 사람들 즉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 나를 떠나 결길로 나간 자들은 자기들의 불법도 담당하리라. 그럼에도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그 집의 문들에서 책무를 맡아 그 집을 섬기며 백성을 위해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잡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리라.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 앞에서 그들을 섬겨 이스라엘의 집으로 하여금 불법에 빠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쳤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내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또 지성소에서 내 거룩한 것들 중 어느 것에도 가까이 오지 못하며 다만 자기들의 수치와 자기들이 범한 자기들의 가증한 일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그 집의 책무를 지킬 자들로 삼아 그 집의 모든 섬기는 일과 그 안에서 행할 모든 일을 하게

하리라.

(겔44:15-31)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이 나를 떠나 결길로 나갔을 때에 내 성소의 책무를 지킨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내게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기되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기고 나에 대한 책무를 지키리라. 그들은 안뜰의 문들로 들어올 때에 아바 의복들을 입고 또 안뜰의 문들에서 그리고 안에서 섬기는 동안에 양털 옷을 입지 말며 아바 모자를 머리에 쓰고 아바 반바지를 허리에 입으며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몸을 동이지 말지니라. 또 그들은 바깥뜰로 곧 바깥뜰로 백성에게 나아갈 때에 자기들이 섬길 때 입던 의복들을 벗어 거룩한 방들에 두고 다른 의복들을 입어 자기들의 의복들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또 머리를 밀지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지도 말고 머리털을 깎기만 할지니라. 어떤 제사장이든 안뜰로 들어갈 때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또 그들은 과부나 버려진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 씨에 속한 처녀나 전에 제사장과 살았던 과부를 취할지니라.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또 그들은 시비가 있을 때에 일어나 재판하되 내 판단대로 그것을 재판하고 내 모든 집회에서 내 법률과 내 법규를 지키며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또 그들은 죽은 자에게 나아가 자기를 더럽히지 말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더럽힐 수 있으며 그가 깨끗하게 된 뒤에 그들이 그를 위해 이레를 셀지니라. 그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 안뜰에 이르는 날에 자기의 죄 헌물을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것이 그들에게 상속 재산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상속 재산이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에게 아무 소유도 주지 말라. 내가 그들의 소유니라. 그들은 음식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먹을지니 곧 이스라엘 안에서 봉헌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 되며 모든 것의 모든 첫 열매의 처음 것과 너희의 온갖 봉헌물 곧 모든 사람의 모든 봉헌물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또 너희는 너희 반죽의 처음 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그리하면 그가 복이 네 집에 머물게 하리라. 제사장들은 날짐승이든 짐승이든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을 먹지 말지니라.

(겔46:13-15) 너는 일 년 되고 흠 없는 어린양 한 마리로 날마다 주께 번제 헌물을 예비하되 아침마다 그것을 예비할지니라. 또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위해 음식 헌물 곧 밀가루 육분의 일 에바와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예비하여 고운 밀가루와 섞을지니 그것은 영속하는 규례로 말미암아 항상 주께 드릴 음식 헌물이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아침마다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어린양과 음식 헌물과 기름을 예비할지니라.

(겔45:17) 명절과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엄숙한 날에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몫이 되리니 그는 죄 헌물과 음식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화해를 이룰지니라.

(겔42:13)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 분리된 곳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 곧 그것들은 거룩한 방들이 되리니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을 거기서 먹으며 가장 거룩한 것들과 음식 헌물과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을 거기에 두리라. 그곳은 거룩하니라.

(히10:1-22) 율법은 다가를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향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회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므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롬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히2:3)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겔45:21-24) 첫째 달 곧 그 달 십사일에 너희는 이레 동안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그 날에 통치자는 자기와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 죄 헌물로 수소 한 마리를 예비할지니라. 또 그 명절의 이레 동안에 그는 주께 번제 헌물을 예비하되 곧 흠 없는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날마다 이레 동안 예비하고 또 날마다 죄 헌물로 새끼염소 한 마리를 예비

하며 또 수소 한 마리에 밀가루 일 에바의 음식 헌물을, 숫양 한 마리에 일 에바를 예비하고 일 에바에 기름 일 힌을 드릴지니라.

(슥14:16-19)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사60:12) 너를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은 멸망하리니 참으로 그런 민족들은 완전히 폐쇄하게 되리라.

(시2:10-12)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시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사65:11-16)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리는 자들이요, 나의 거룩한 산을 잊고 그 군대를 위하여 상을 예비하며 그 수대로 음료 헌물을 제공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어 칼에 넘길 터인즉 너희가 다 몸을 구부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되 너희는 주리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시되 너희는 목마르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하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기뻐서 노래하되 너희는 마음이 슬퍼서 소리를 지르고 영이 괴로워서 울부짖으리라. 또 너희가 너희 이름을 내가 택한 자들에게 저주거리로 남기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너를 죽이고 자신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하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의 고난들이 잊혔고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이다.

(행5:1-11)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세 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 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곧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시66:7)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말지어다. 셀라.

(눅19:17-19)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 므나로 오 므나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다섯 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고후5:20)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계5:10)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계1:6)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일3:1-3)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마19:2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재판하리라.

(마16:19)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네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마18:1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겔48:1-35) 이제 지파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사람이 하맛으로 갈 때에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의 경계인 하살에난과 하맛의 지경까지는 단의 몫이니라. 이것들은 그의 동쪽과 서쪽 양쪽이니라. 단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 옆으로 동

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유다의 몫이라. 유다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너희가 드릴 헌물로서 그 너비는 이만 오천 갈대며 그 길이는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 다른 부분들 중 하나의 길이와 같겠고 성소가 그것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너희가 주께 드릴 봉헌물은 길이가 이만 오천 갈대요, 너비가 만 갈대가 되리라. 이 거룩한 봉헌물은 그들 곧 제사장들을 위한 것으로서 북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갈대, 서쪽으로 너비가 만 갈대, 동쪽으로 너비가 만 갈대, 남쪽으로 길이가 이만 오천 갈대가 되겠고 주의 성소가 그것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그것은 사독의 아들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 되리라. 그들은 나에 대한 책무를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이 결길로 나갔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결길로 나간 것 같이 결길로 나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드린 그 땅의 이 봉헌물은 레위 사람들의 경계 옆에서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 되리라. 제사장들의 경계 맞은편에서 레위 사람들은 길이 이만 오천 갈대, 너비 만 갈대를 차지할 터인데 그 전체 길이는 이만 오천 갈대요, 너비는 만 갈대라. 그들이 그것을 팔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첫 열매를 다른 데로 돌리지도 못하리라.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 이만 오천 갈대의 맞은편의 너비에 남아 있는 오천 갈대는 그 도시와 사람이 거하는 곳과 주변 지역을 세울 속된 장소가 되겠고 그 도시가 그것의 한가운데에 있으리라. 그것의 치수는 이러하니라. 북쪽 편이 사천 오백 갈대, 남쪽 편이 사천 오백 갈대며 동쪽 편에 사천 오백 갈대, 서쪽 편이 사천 오백 갈대라. 그 도시의 주변 지역은 북쪽으로 이백 오십 갈대, 남쪽으로 이백 오십 갈대, 동쪽으로 이백 오십 갈대, 서

쪽으로 이백 오십 갈대가 되리라. 그 거룩한
몫의 봉헌물 맞은편에 길이 방향으로 남은
것은 동쪽으로 만 갈대, 서쪽으로 만 갈대가
되겠고 그것은 그 거룩한 몫의 봉헌물 맞은
편에 있을 것이요, 그것의 소출은 그 도시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양식이 되리라. 그 도시
를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서 나와 그것을 섬기리라. 그 봉헌물은 총
이만 오천 갈대에 이만 오천 갈대가 되리라.
너희는 네모반듯한 그 거룩한 봉헌물을 그
도시의 소유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그 거룩
한 봉헌물과 그 도시의 소유물의 이쪽과 저
쪽에 남은 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 되리니
곧 동쪽 경계 쪽으로 그 봉헌물의 이만 오천
갈대 맞은편과 서쪽으로는 서쪽 경계 쪽으
로 이만 오천 갈대 맞은편과 또 통치자를 위
한 몫들의 맞은편이라. 그것은 거룩한 봉헌
물이 되고 그것의 한가운데에 그 집의 성소
가 있으리라. 또한 레위 사람들의 소유와 그
도시의 소유물로부터 유다의 경계와 베냐민
의 경계 사이에 통치자의 것인 소유 한가운
데 있는 것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 되리라.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건대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베냐민이 몫을 차지하고 베
냐민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시므온이 몫을 차지하며 시므온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
는 잇사갈이 몫을 차지하고 잇사갈의 경계
옆으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스
블론이 몫을 차지하며 스블론의 경계 옆으
로 동쪽 편에서부터 서쪽 편까지는 갓이 몫
을 차지하리라. 갓의 경계 옆으로 남쪽을 향
한 남쪽 편에서 그 경계가 다말에서부터 가
데스의 다툼의 물들에까지 이르고 대해로
향하는 그 강에 이르리라. 이것은 너희가 제
비뿔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상속 재산으
로 나누어 줄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북쪽 편에
서 그 도시의 나가는 곳이 이러하니 곧 측량
하면 사천 오백 갈대니라. 그 도시의 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들을 따를 것이며
북쪽으로 세 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르
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라. 동쪽 편에 사천 오백 갈대가
있으며 세 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라. 남쪽 편에 측량하면 사천 오백 갈대
가 있으며 세 개의 문이 있으리니 하나는 시
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블론 문이라. 서쪽 편에 사천 오백 갈대가
있으며 그것들의 문이 셋 있으리니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
달리 문이라.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만
팔천 갈대더라. 그 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
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가 되리라.

제6장 다 이루었다

33. 사탄의 최후의 패배

(계20:7-10) 그 천 년이 다 차매 사탄이 자
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
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시10:4)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
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시49:7-9)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다.)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요6:70-7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는 곧 열들 중의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더라.

(마27:3-4)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온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시72:8-9)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지배할 터인즉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시110:2)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시2:12)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시66:7)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말지어다. 셀라.

(사26:9-11)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 하였사온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으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사악한 자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오나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계22:11)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계12:5)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여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슥14:16-19)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곧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단11:41-42)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그가 또한 자기 손을 나라들 위로 펼치리니 이집트 땅이 피하지 못하며

(마25:34)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마25:40)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사65:20)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거나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백 세에 죽으리라. 그러나 죄인은 백 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슥8:4-5)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으므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것의 거리에서 놀리라.

(시72:9) 광야에 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밟으며

(사49:23) 또 왕들은 너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리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며 네 발의 먼지를 핥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네가 알리라.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34. 큰 흰 왕좌 심판

(단12:2)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의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요5:28-29)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골1:24-28)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라.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마16:22)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요13:36)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요14:5)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마11:1-6)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자기 제자들 중의 두 사람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머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행18:24-28)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우므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으므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거기에 이르러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 주며 힘 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계20:12-15)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벧후2:4)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벧후2:9)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멸할 줄 아시되

(벧후3:7)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시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벧후2:4)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고전6:2-3)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맡겼거든 너희가 지금이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고전11:10)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유1:6)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시82:1)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서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는도다.

(계20:11-15)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슌14:11)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겠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리로다.

(롬3:20-26)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

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소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눅16:19-24)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으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아,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고후5:8)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골2:14)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지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출34:7)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

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별하여 삼대와 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

(히10:1-4)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골2:14)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엡4:8-9)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마12:40)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눅23:4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11:40)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1:9)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게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눅8:54)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눅7:14) 나아가사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행9:40)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매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행20: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계11:18) 민족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약2:18)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계21:22-24)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21:25-27)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22:14-15)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밖에 있느니라.

(창3:22)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계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계20:14-15)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

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계17:8)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닷없는 구렁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출32:32-33)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계3:5)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시69:28) 그들을 산 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왕상10:18) 또 왕이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그것을 입혔더라.

(마12: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계20:11)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욥14:14-22)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원하시리이다.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 범죄를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산은 무너져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내쫓으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되 오직 그에게 붙어 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하니라.

(히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고전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계20:11)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12:41-4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12:48)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빌2:9-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전15:25)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니

(수10:24) 그들이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사들의 대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라.

(시110:1)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35. 마지막 날들

(단9:24-27)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 칠십 이레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

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육십이 이레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신31:29)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철저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 손의 일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마지막 날들에 재앙이 너희에게 닥치리라, 하니라.

(단2:28)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 주시는 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리 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렘23:18-20) 누가 주의 계획 가운데 서서 그의 말을 깨닫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을 주목하고 들었느냐? 보라, 주의 회오리바람 곧 혹독한 회오리바람이 격노 중에 나아갔으니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혹독하게 임하리라. 주의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집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철저히 깊이 생각하리라.

(겔38:16)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오 곡아,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네 안에서 거룩히 구별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신4:30)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곧 마지막 날들에 네가 주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민24:14)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 드리리이다, 하더라.

(렘48:47)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들에 모압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렘49:39)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호3:4-5)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사2:2)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들리라.

(말4:1)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 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렘30:24) 주의 맹렬한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리라.

(딤후3:1)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벧후3:3)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슷한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유1:18)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 주었는데

(약5:3)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요일2:18)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히1:2)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벧전1:20)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벧전1:5)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36. 영원

(사57:15)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계1:8)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계21:1)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히11:3)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만 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벧후3:11-12)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벧후3: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사65:17-19)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

성을 기뻐하리니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계21:5)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계21:4)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사65:17)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히1:3)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에게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골1:17)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엡1:10)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렘33:12-21)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한 이곳과 거기의 모든 도시에 다시 목자들의 거처가 있으리니 그들이 자기 양 떼들을 누이리라. 산지의 도시들과 골짜기의 도시들과 남쪽의

도시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처소들과 유다의 도시들에서 양 떼들이 그것들을 세는 자의 손 밑으로 다시 지나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약속한 선한 일을 이행하리라.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며 그것을 부를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우리의 의라 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 왕좌에 앉을 사람이 결코 다윗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며 또 내 앞에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음식 헌물에 불을 붙이며 계속해서 희생물을 드릴 사람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의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대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려 그의 왕좌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없게 할 수 있으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으리라.

(겔37:25-27)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 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고전10:32)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유대인

(신33:27) 영원한 하나님께서 네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도다.

(사60:15) 전에는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한 뛰어난과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사66:12)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대에 너희가 젖을 빨며 또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춤을 추리라.

(사65:17)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창17:8)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24:7)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사60:15-21) 전에는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너를 통해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한 뛰어난과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젖가슴을 빨고 또 나 주가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내가 늦 대신 금을 가져오며 쇠 대신 은을 가져오고 나무 대

신 늦을 가져오며 돌 대신 쇠를 가져오고 또 네 관리들은 화평이 되게 하며 네 감독자들은 의가 되게 하리니다시는 폭력이 네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네 경계 안에 없으리라.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네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네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네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네 해가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또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겔37:25)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창22:17)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창26:4) 또 네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사60:22) 어린 자 하나가 천 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그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이방인

(신32:7-9)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헛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

라. 그가 내게 보여 줄 것이요, 네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 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행17:24-27)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걱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계21:24)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계21:26)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리라.

(속14:16)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사66:23-24)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아와 경배할 것이요,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자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교 회

(요3:15)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10:28)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갈4:26)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계21:2)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계21:10-22)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 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이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열두 문이 있으며 그 문들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나와 이야기 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

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매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석들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랍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계22:1-2)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엡1:11-12)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계7:9-17)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

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쬘지 아니하리니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하더라.